



즉각 보도용: 2021년 10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백신 의무 접종 대상에 OMH과 OPWDD 병원 시설 직원을 포함하도록 확대

*OMH 정신병원과 OPWDD 인증 전문 병원 직원 대상으로 11월 1일까지 최소 1차  
접종을 의무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의료종사자 대상 백신 의무 접종을 확대하여,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과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의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지침에 의하여,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들을 치료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테스트로 접종 면제 옵션 없이, 11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최소한 1차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무화에 앞서,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10월 12일부터 접종하지 않은 경우, 매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 의무화는 사람들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료시설의 모든 종사자들은 이 백신 접종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모든 기본적 예방 수단을 강구하여,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 의료 서비스와 특별 케어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확신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관할에 속하는 이러한 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9월 27일에 발효된 백신 접종 의무화는 모든 병원과 요양원을 포함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규제를 받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10월 7일 백신 의무화는 성인 보호 시설, 가정 의료 기관, 장기 가정 요양 프로그램, AIDS 가정 보호 프로그램, 호스피스 서비스, 진단 및 치료 센터를 포함하여, 보건부의 규제를 받는 추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발효됩니다.

OMH와 OPWDD 기관 규정 하에서 수립된 이번 신규 요건은 OMH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개인, 그리고 OPWDD 인증 특별 병원 종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Hochul 주지사는 백신 의무화를 다가오는 수주 내에 복지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러한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서 각급 직원들이 계속하여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OM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MH의 서비스 대상자 중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훨씬 취약하게 하는 기저 질환이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우리 환자와 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하며, Hochul 주지사가 의무화를 확대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